

민주 오늘부터 광주·전남 컷오프 면접

4곳 전략공천설에 후보들 초긴장

선거인단 모집 부작용에 경선·총선 구도 급변할 듯

민주통합당이 호남에 대한 전략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광주·전남지역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부작용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경선 및 총선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의 제안이 있었고 상당한 반론이 오가면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열린 논의를 벌였다는 후문이다. 물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더욱이 29일부터 광주 남·북갑·북을·광산갑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공천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시작되면서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들은 긴장감 속에 당 지도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략공천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 = 일각에서 전략공천지역으로 거론하는 선거구는 여성공천과 아권연대 등의 가능성이 점쳐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당 지도부 일각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이뤄진다면 해당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다. 전략공천에 반발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로 민주통합당 후보와 일전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전략공천 논의 본격화 =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밤부터 호남지역 전략공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전략공천 논의는 늦은 감이 있다. 후보마다 선거인단 모집에 혈안이 될 정도로 정성을 들여 경선을 대비했는데 경선의 기화마저 빼앗아버리는 전략공천을 뒤늦게 한다는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 결과가 미칠 공천 영향은? =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불법 선거인단 모집' 진상조사 결과가 경선은 물론 총선 전체를 '민주당 대 무소속'의 대결구도로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총선 전체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의혹 및 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의 불법이나 과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후보자격 박탈과 이에 따른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의욕적으로 도입한 모바일 투표 등 국민경선제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어서 당 지도부가 어느 때 보다 강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정국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주·화순, 함평·영광·장성 등 진상조사가 이뤄질 지역구의 후보들은 일단 선거인단 모집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면서 모든 정보력을 동원, 진상조사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중앙당 지도부가 지역의 여론을 경청해 상식에 입각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을 때는 반(反) 민주당 정서가 급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광주 동구, 북갑, 북을, 나주·화순, 함평·영광·장성 등 진상조사가 이뤄질 지역구의 후보들은 일단 선거인단 모집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면서 모든 정보력을 동원, 진상조사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28일 오전 광주 북구 유동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앞에서 '투신 자살' 사건을 유발한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경선 중단과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 허울뿐인 참여경선 전면 중단하라"

광주·전남 시민단체 촉구 선거인단 불법 제보 받기로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투신 자살 사건'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현행 경선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개혁공천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 진보연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민교협, 광주·전남지회 대표들은 28일 광주 북구 유동 민주통합당 광주시·전남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불법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전 동구청 공무원의 투신 사망사건의 본질은 관권·금품경선이 낳은 비극"이라며 "허울뿐인 참여경선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불법 선거인단 모집의 허울 받고 있는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관련선거 정황이 드러난 동구청장도 출당시켜야 한다"며 "관권·금품선거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을 마친 뒤 민주통합당 중앙당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광주시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 29일 오후 2시 광주 YMCA 무진관에서 민주통합당의 국민동원 경선규탄과 전국적 아권연대를 촉구하는 광주지역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남지역 국민동원 경선 중단과 전체 공천 일정 잠정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편법·금권·관권 선거인단 모집사태 신고 접수처를 광주시민협의회 사무실에 마련해 불·탈법을 자행하는 예비후보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Cartoon titled '빛의 만평' (Light's Manseung) by Kim Jong-du. It depicts a man with a large bag of money labeled '300억' (300 billion) and another man with a bag labeled '의원직' (MP position). The man with money says '나도 통과야 했어' (I also had to pass). The man with the MP position says '끝내 '꿈수 국회'로 마무리' (Finally finish with 'Dream House' Congress). The cartoon satirizes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role of money.



4·11 총선 민주통합당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투신 자살'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광주를 찾은 정장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8일 오전 광주 북구 유동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에서 회의를 마친 뒤 관계자들과 당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 수사 별개... 동구 공천 신속 결정"

'투신자살' 진상 조사 정상선 민주 선관위 위원장 관련 개입·금품수수 등 불법엔 엄중조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 중 발생한 '투신 자살' 사건의 진상과약을 위해 광주에 온 민주통합당 정장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동구 '투신 자살' 사건 때문에 공천이 늦어지면 광주·전남지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결과와 별개로 동구 공천 문제는 조속히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조사결과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번 중앙당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해 동구 공천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로 가면 광주 동구 공천뿐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전체 선거 공천이 늦어질 수 있다"며 "진상조사단이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해 지도부에 조사보고서를 올리면, 지도부가 관련 후보들의 징계와 공천문제를 결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어제 선관위에 압수 증거물을 건네받아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장과 면담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진상조사단은 광주시 선관위를 방문해 당시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상황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 압수 증거물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투신 자살' 사건과

관련한 연루 의혹이 있는 박주선의 원과 유태명 동구청장, 동구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정 위원장과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선관위가 압수한 증거물들에 주목하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양형일·이병훈·정영재 예비후보들도 불러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동구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관련개입이나 금품수수, 대리등록 등 불법선거 여부를 파악한 뒤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7시55분께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 도서관에서 시민 경선 인단 모집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도서관장 조모(65·전 계림1동장)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공공건물 불법 선거운동 장소 악용 유감"

강운태 시장 공직자 종립 요청 강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8일 논평을 내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동구에서 발생한 불법한 사태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경선제의 순수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며 깨끗한 선거,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운태 시장 공직자 종립 요청 강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8일 논평을 내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동구에서 발생한 불법한 사태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경선제의 순수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며 깨끗한 선거,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운태 시장 공직자 종립 요청 강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8일 논평을 내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동구에서 발생한 불법한 사태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경선제의 순수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며 깨끗한 선거,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Advertisement for NH (Nonghyup) financial services. The main headline reads '새 농협, 새 출발을 위해! 3월 2일 00시~05시까지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금융거래가 잠시 중단됩니다' (For the new Nonghyup, new start! Financial transactions will be temporarily suspended for system conversion work from 00:00 to 05:00 on March 2nd). Below this, there is a table detailing the suspension of various services: Card transactions (including credit cards, point cards, and checks), Internet banking/ATM services, and insurance services. The table also lists the duration of the suspension for each category. At the bottom, there is a logo for NH Nonghyup.